

사무엘하 13장 30-36절 말씀

③

- 30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
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
다윗에게 이르매
- 31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
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
- 32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
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
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
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
- 33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
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
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

④

- 34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
-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
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
- 35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
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
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
- 36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
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